

##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 모두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각별히 뜻을 가지고 한 일이다. 그 동안에, 30년 동안 우리 한국사회가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대로 가면 중앙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있다. 뿐만 아니고 수도권 자체도 너무 과밀이 심해져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부담이 있다.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국토의 관리, 균형 잡힌 국민적인 삶,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정상적인, 합리적인 발전의 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단히 많은 국력을 거기에 기울인다. 그러자면 결국 잘사는 수도권을 깎아 내릴 것이 아니라 지방을 더 잘 살게 북돋우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전략과 자원이 동원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 자체의 발전 역량이다. 지방 스스로 전략을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 역량의 핵심을

저는 지방대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시민사회와 어찌면 분리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과 시민사회를 결합시켜야 하고, 경제계를 또 거기에 하나 포함시키는데, 이 3자를 묶어낼 수 있는 매개집단이라고 할까, 매개세력이 결국 저는 언론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역언론이 중심이 돼서 지방대학과 지방의 시민사회, 지방의 경제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 지방이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육성 전략이랄까, 지방지원 전략의 중심에 사실 지방대학을 놓고 있지만 지방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답변을 통해서 서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들을 주시고, 저도 성의 있게 답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또 지방발전의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